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희망

박헌출 농림부축산국장

1960년대 말부터 오랜 기간동안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온 「월간양계」가 창간 36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양계업은 그 동안 규모화, 현대화되고 닭 사육수수가 증가되는 등 꾸준히 발전하여 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찾아온 경기침체와 2003년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양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호 노력하여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양계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DDA 협상이 본격화되고 FTA도 점차 확대됨에 따라 외국 축산물과의 경쟁이 한층 심해졌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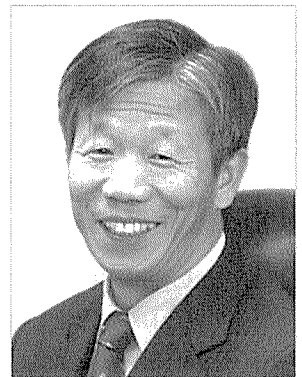
정부에서는 이 모든 요구를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해결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및 관련 업계 스스로 이 변화와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양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계농가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 자조금은 양계농가가 자율적으로 수급안정과 양계산물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입니다만, 양계의무자조금은 다른 축종과 달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양계자조금은 양계농가가 주인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육계 및 계란 값을 안정시키려면 현재 추진중인 데이터베이스 사업에 양계농가가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베이스사업은 종계의 입식단계부터 도태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고, 부화장에서 병아리의 입란 및 발생 실적을 파악하며, 산란계는 농가별 분양정보 등 수급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농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가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면서도 잘 지켜지지 않는 강제환우 근절입니다. 강제환우에 따른 수급불안정 초래, 품질이 떨어지는 계란생산, 건강하지 못한 병아리 생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강제환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소비자와 다른 양계농가를 위해서 강제환우는 하루 빨리 국내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넷째, 이제 양계산업은 친환경적이야 합니다. 양계농가에서도 계사 주변에 나무를 심어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계분의 자원화와 악취 감소를 통하여 이웃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양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양계농가에서 철저한 방역의식을 가져야 하며, 고품질 및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의 첫 걸음은 질병퇴치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가금질병이 발생할 경우 전체 생산기반마저 위태롭게 되므로 농가에서도 가금질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소독을 철저히 실행하고 축사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양계산업은 이미 소수 정예화되어 있으므로 양계인들이 뜻을 한 곳으로 모으면 못 할 일이 없으며 이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양계인이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 양계산업을 국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도 「월간양계」가 양계산업 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양계산업 발전에 중요한 전문잡지로서 핵심역할을 계속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양계인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양계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계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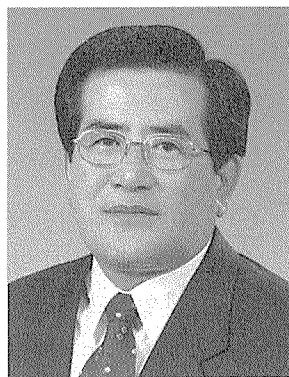
송 석 우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양계현장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월간양계가 올해로 창간 36주년을 맞이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 동안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역할과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간양계는 그간 양계산업과 관련된 최신의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양계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양관리기술, 새소식, 시세와 수급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매번 신속하게 전함으로써 양계분야 종사자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양계관련 전문지로 인정받고 자리 잡음으로써 명실상부한 으뜸 월간지로 성장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축산업은 양적인 성장을 지속하여 축산업생산액은 농림업생산액 중 30% 내외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림업 7대 주요품목 중 축산물이 5개 품목을 차지하고 그 중에 계란과 닭이 포함되어 있음은 결국 농업부문에서 양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 주며 앞으로 국민소득 증대와 식생활의 고급화로 인해 양계산물의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축산업의 성장추세와 더불어 양계산업도 그간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고 근



축사 월간양계 창간 36주년 기념

래에는 수요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질적인 측면이 중요시 되면서 그 만큼 다양하고 많은 정보획득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월간양계에 요구되는 정보매체로서의 역할도 점차 증대될 것인 바, 양계인들이 월간양계에 거는 기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축산업의 대외여건은 한·칠레 FTA 와 DDA 협상 등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여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대내외역 역시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 가능성의 우려로 사육농가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추진이 요구되고 있는바, 특히 양계산물을 취급하는 가공공장, 도계장, 식품업체 등은 HACCP인증 등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양계농가, 관련업체, 유통종사자 등 양

계인들의 합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농협에서도 고품질 양계산물의 생산과 브랜드화를 전개하고 가금수급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양계자조활동자금제도의 도입 등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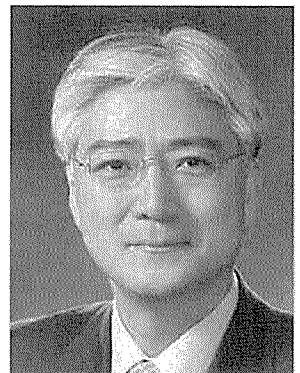
아무쪼록 월간양계가 양계인들의 지침서이자 필독서로서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실하고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 양계인 스스로 앞길을 개척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양계산업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36주년을 맞아 가일층 도약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월간양계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전국 양계현장에서 이 나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비지땀 흘리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양계인 여러분과 그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양계

양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최 정 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월간양계」의 창간 3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양계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양계농가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업계 현실을 외부에 알리고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계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양계협회 임직원과 기자들에게 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간 이후 「월간양계」는 선진국의 양계 기술정보를 수집하여 농가에게 전달하고 양계산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각계각층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농가를 계도하고 각종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정책을 건의함으로써 양계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전문지로서



의 확고한 위치를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양계산업은 수급불안정에 따른 가격 파동과 가축질병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북미지역에 발생하였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럽지역으로 확산되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청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월간양계가 양계산물의 수급이 안정되도록 관련업계의 중재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양계산물의 수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에도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양계농가 스스로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양계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월간양계가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월간양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월간양계」의 창간 36주년을 축하합니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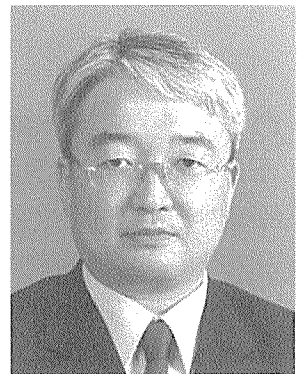
양계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지로 성장하길

강 문 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월간양계 창간 36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간이후 현재까지 월간양계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건주하고 있는 최준구 양계협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많은 분들에게 검역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우선 전합니다.

양계산업의 좀 더 나은 미래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우리 앞에 놓인 위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험은 바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올 겨울이 국내 재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중국, 몽고, 러시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본에

서는 H5N2 저병원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많은 국가에서 인플루엔자가 근절(박멸)되기는 커녕 새로운 변이형의 출현에 따른 또 다른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유전자교환 및 재편성에 의한 사람 간에도 전염되는 새로운 변종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 수일 내에 수백만명의 인명피해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나 유엔식량농업기구에서 경고

성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을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설정하고 전국 종오리 혈청검사, 철새분변검사 등 대대적인 방역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양계농가나 산업현장에 종사하시는 분께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병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닭질병의 전파는 오염된 사람, 차량, 기구, 닭 및 닭 부산물 등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

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소독 후에 출입할 수 있도록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분처리 차량은 가장 위험한 전염원입니다. 절대로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계분차량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완벽한 세차와 철저한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월간양계 창간 36주년을 축하드리며, 양계협회 및 양계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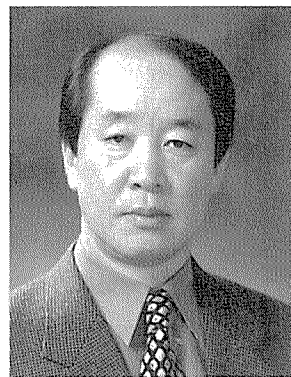
소비자에 신뢰받는 양계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필요하다

이 영 재 한국양계농협 조합장

월간양계가 올해로 3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양계는 창간이후 오랜 기간 동안 양계분야의 전문적인 정보제공은 물론 양계인들의 올바른 방향으로의 축산환경 개선 등 계도로 양계인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으며 양계전문지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양계인들은 양계산물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보여지며, 현재는 동남아 및 터키 등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언론 보도가 국내 양계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양계농가들은 이러한 소비감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성과 고품질의 양계산물을 생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자조금을 조성하여 양계산물 소비홍보에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안전성 확보와 고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양계산물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반면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되는 양계산물은 소비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재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양계산물 공급을 위해서는 사육 단계부터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을 설정하여 실현하고, 양계산물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생산이력 추적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한국양계농협에서는 안전하고 고품질 양

계산물을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먼저 수도권에 자본금 50억원을 투자하여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는 계란유통센터를 신축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상품의 계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양계농협의 사업은 양계농가 경영을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창간 36주년을 맞은 양계 전문지인 월간양계가 앞장서서 계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양계업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매체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양계**

조류인플루엔자의 위협을 떨쳐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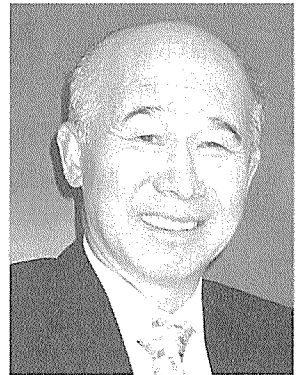
신 정 재 (사)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월간 양계의 창간 36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나온 오랜 시간만큼 앞으로서도 양계산업의 발전과 축산 업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축산 전문월간지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양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계 산물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양계농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계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매체 그리고 제도적으로 양계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부단한 지원 또한 중요한 발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약품 업계에서도 가축용 소독제로서 범용으로 사용하는 소독약품에 대한 사용방법 재평가를 통하여 돼지콜레라·구제역 등과 같이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전용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양계농가의 소독약품 사용의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어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골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시베리아·만주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주요 전파 요인이 가창오리·청둥오리·기러기 등 북방철새의 국내 도래시기가 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보(관심단계)'를 발령하고 방



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할 경우 양계농가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종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크나큰 위험을 미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의 일선에 선 양계농가와 수의사 그리고 방역기관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예방한다는 일념으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양계**

꾸준한 연구와 개발을...

윤 홍 근 (사)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회장

우선 먼저 월간양계 창간 36주년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현대의 기업적 양계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계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양계산업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농가부업으로 시작해서 상업적 양계 그리고 기업적 양계산업으로의 발전은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민소득수준향상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식단에 육류과다를 염려할 때가 되었고, 건강문제가 대두되면서 타육류 보다 우리 닭고기는 고단백 저지방식품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웰빙식품으로 현대인 모두 자주 찾는 식품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발전된 우리 양계산업은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되는 시대에 맞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찾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상품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과 글로벌시대에 따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오늘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계산업의 생산, 유통, 가공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꾸준한 연구와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산업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치킨외식분야도 국내 닭고기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정화를 기하면서 미래의 건강식이자 최고의 웰빙식품인 닭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국내 닭고기 소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비전을 가지고 합심하여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 양계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도 발전된 산업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양계산업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양계**

